



40년 전에도 계약서와 설계보수대가는 “뜨거운 감자”

올 해로 창간 47주년을 맞은 월간 '건축사'는 2013년 4월 현재 통권 528호를 발행했다. 건축사는 40여 년간 건축계의 다양한 이슈를 비롯해 수많은 건축 작품과 소식들을 전해왔다.

그간 발행된 간행물을 보면, 40여 년간 건축계가 안고 있던 고민과 연구 등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위상 찾기'는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 미래에서도 건축계가 풀어야 할 영원한 과제인 듯하다.

본지는 지난 47년간 게재되었던 내용을 통해 당시에는 건축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작품들이 있었으며, 선배건축사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했는지 '건축사 Time machine'을 신설, 연재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1966년 창간호와 1967년 발행된 4권(4월, 7월, 9월 11월호)의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부

도 21명, 전라남도 37명, 경상북도 69명, 경상남도 18명, 제주도 5명의 회원이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지부 중요시책(重要施策)에 눈길이 가는데, ▲ 날로 증가하는 무면허업자의 단속 ▲덤핑 방지책 수립에 있어 계약서 존속과 설계보수액 100% 받을 수 있는 대책 ▲설계도서작성의 기술적인 상향검토 ▲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책 모색이다. 어찌 보면 40년 전 건축계의 고민은 현재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에도 설계비에 대한 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단 점을 알 수 있다.

'3.15 의거 기념탑' 등 3작품 게재

창간호에는 3.15의거 기념탑, 국립과학관, 다락방(종교건축물) 3작품이 게재됐다. 3.15의거 기념탑은 박성규 건축사(삼화건축연구소)가 설계했는데, 높이는 12m, 둘레 10.8m, 삼각석탑으로 지어졌다. 이 탑은 경남 마산시에 현재에도 위치하고 있다.

차경순 건축사(차경순건축연구소)가 설계한 '국립과학관'은 건평 8,778평(당시 표기방식)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졌다. 창경궁이 복원되기 이전 이곳은 '창경원'이었던 터라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릉동 2번지 창경원 내'로 되어 있다. 일제에 의해 조성된 창경원은 창경궁에 각종 놀이시설과 동물원을 설치, 위락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국립과학관은 그중 하나였다. 컴퓨터 없던 당시 수작업으로 작성한 투시도와 평면도가 낯설게만 느껴진다. 이밖에 김경환 건축사(김경환건축연구소)의 종교건축물인 '다락방'이 게재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회장 김순하

1966년 7월에 발행된 창간호를 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교통부(이하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1965년 10월 23일에 건축사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한다. 창립회장은 발기인인 김순하 건축사가 맡게 된다. 김 회장은 광주근무시절에 설계한 전라남도 청사(1932)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의 기술자문을 맡아 건축을 알리기도 했다.

당시 건축사 창간호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당시 건설부 전예용 장관, 대한건설협회 조정구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송민구 회장의 축사가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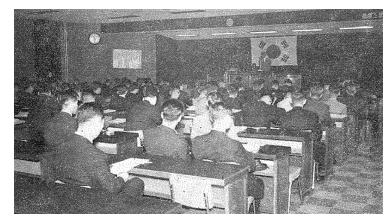
창간호 제호는 '신건축사'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1호부터는 '건축사'로 제호를 바꿔 발행됐다.

창립초기 11개 지부 활동

협회 창립 초기에는 전국에 11개 지부(현 시도건축사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건축사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지부별 회원 수도 적었다. 지부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67명, 부산직할시 53명, 경기도 28명, 강원도 14명, 충청북도 12명, 충청남도 26명, 전라북

1966년 9월 24일, 제1회 정기총회 열려

협회는 1965년 10월 23일 창립이후 1년 뒤인 1966년 9월 24일 건설회관에서 10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회 정기총회



고려대학교 정문



김만성 건축사



한씨 주택



강진상 건축사

총회에선 '전국회원 우수작품'과 '전국우수건축자재'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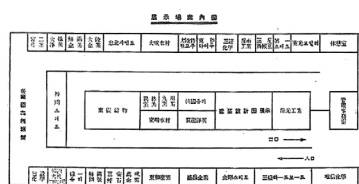
우수작품은 '고려대학교 정문'을 설계한 김만성 건축사(연합건축)와 '한 씨 주택'을 설계한 강진상 건축사(태양건축연구소)가 수상했다. 우수건축자재 우수상은 구천공업사의 '청기와'가, 우량상은 금강공업주식회사의 '금강스레트'가 각각 받았다.

또한 이날 총회에선 회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회원 회비는 600원(본부 400원, 지부 200원)으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세입을 결정했다. 참고로 당시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3천2백 원이었다.

1967년 4월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개최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부스배치도

1967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민회관 옆 광장에서 '제1회 전국우수 건설자재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건축사 2호에 게재됐다.

이 전시회는 대한건축사 협회가 주관했으며 당시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 공보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

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토목학회가 후원했다.

전시회는 160평 규모의 전시장에 32개 업체의 자재와 협회 회원작품이 동시에 전시됐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일반인들의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인지 관람객들에게 미리 용지를 나눠 인기자재를 적게 하고, 그 중 6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관람객들이 선정한 인기 자재 1위는 2천4백76표

를 얻은 한국스레트주식회사의 스레트가 차지했으며, 2위는 대우기업사의 '온돌 취사대'와 삼영공업주식회사의 '하드-보-드'가 차지했다. 현재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과 같은 성격의 전시회지만 당시 '건설자재전시회'라고 칭한 행사명이 다소 이습기만 하다.

왜색시비 논란... '부여박물관' 그리고 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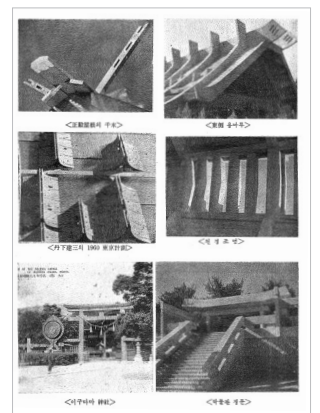
죄담회 모습

1967년 9월에 발행된 건축사 3호에는 당시 왜색시비 논란이 된 '부여박물관'에 대한 죄담회가 게재됐다.

김수근 건축사(김수근건축연구소)가 설계한 부여박물관은 거의 완공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공사 현장을 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 동아일보에 제보를 하게 되는데, 제보했던 내용은 "박물관 진입로의 대문이 일본의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 '도리이'와 그 모습이 같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기사를 통해 여론을 몰기 시작, 곧바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김종업 건축사(김중업건축연구소)도 동아일보 기고에 "부여 박물관의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일본 신사의 디포르메라는 인상이 확연하다."고 밝힌다. 김종업은 서울공대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김수근에게 서양건축을 가르쳤던 스승이기도 했다.

부여박물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격하게 일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전문단체로서 당시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과 교수, 사찰스님 등을 초빙해 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김종업이 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여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건축인들은 부여박물관 논란에 대해 이는 건축계의 문제이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당국에 건의하자는데 공감했다.

결과적으로 부여박물관은 당시 여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젊은 건축사 김수근이 개작에 동의, 6년이 지난 1971년 개관하게 된다. ㉡



일본 건축 비교 사례